



# 莊子의 入門書

## 遊悠人生

범우가 인생을 무사히 살기 위해서는 우등생식 공자의 도덕주의로는 안되며 다른 차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대도, 불구자, 결인등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을 등장시켜 인간으로서의 인간찬미의 대상으로 드라마화하여 생명의 존귀를 주창 했다.

즉 생명의 존귀는 선택된 자 만의 것이 아니고 평등하다는 뜻에서 였다.

그는 사생관에서도 생사일여를 갈파 했다. 회가 있으면 노가 있고 시(是)다 비(非)다 생이다 사다-이런 모든것이 혼돈 이다. 혼돈의 긍정은 一元論에서의 출발이며 생사일여의 사생관은 장자적 철학의 당연성이라 하겠다.

이것을 그가 사자와의 대화를 寓하여 표현 했다. 장자가 사자에게 "당신이 다시 환생한다면 무엇이 되어 보려는가" 하고 물으니 사자 왈"사자의 세계에는 제왕 군주의 낙이 있는데 어찌 그 낙을 버리고 그 지긋 지긋한

오 순 근  
(한 학 자)

인간고해에 나가라고 하니 그런말 두번 다시 하지말라  
"고 설명 했다.

사생은 인간 일대사다. 이것만은 인력으로 어찌 할수  
없다. 이것이 진리며 진실이라고 했다. 또 생사는 주야  
의 순환과도 같은 천칙이니 인위로는 안된다. 인간은  
체를 받아 생을 짊어지고 고생하다. 편히 쉰다" 이렇게  
생과사 모두를 긍정 한것이다.

즉 인간이란 인간형태를 받아 오직 한번뿐인 "삶"의  
기회를 얻게 된 참으로 소중한 재물이니 인생을 중히  
하고 즐겁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것은 당연지사다.

우리의 삶이란 만물의 자성자화의 변천의 길과같은  
인생인데 죽는 그 날 까지 그 얼마나 소중한 귀중하  
고 또 즐겁고 신나는 삶이 아닌가.

단명, 장수, 생사 이 모두가 있는 그대로이며 이 세상  
은 일순의곳. 아무것도 얻을것도 없고, 잃을것도 없으며  
이것이 생의 진리며 삶의 진실이라 했다.

그뿐아니다. 일체의 물상은 항상 변화유전의 상태임  
으로 끝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자성자화 뿐이다. 그래  
서 현실적존재속에 집착할만 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무한미소의 일부분 일 뿐이며 무한의 암흑도,  
희열도 일순 일섭광에 불과 한것인데 이를 알지못하는  
자가 많으니 그 얼마나 무지하고 가련한가 하고 탄식했  
다.

진리는 형태도 장소도 없다. 인간이 불안해 보이는 혼  
돈도 혼돈속에 통일된 정돈이 있고 면면히 흐르는 만물  
이 자성자화의 원류대로 흐를 뿐이다.

고로 인간사회라는 정돈된 혼돈속에서 열심히 사는것,  
그것이 삶이요, 삶의 진리다. 그 혼돈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정신은 감각아닌 감성을 갖고 사는것이 삶의  
진실이라 했다.

혼돈이란 인간사회 실상을 말하여 고급 인간사회의  
실상을 투시 한 것이다.

진리도 깊이 규명하다 보면 혼란만 더 하게 된다. 그  
래서 문명의 극은 인간성상실과 같이 인간성 회복의 길  
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감성도 지성이나 사상에 구애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데 감성이란 지성의 한계를 넘는 천성 이다. 뱃속에서  
나오면서 부터 간직한 마음의 소재가 감성이다. 그래서  
무지가 인간을 불행히 한다는 인간들이 무서운 착각을  
버려야 한다. 지식이란 모든 존재를 "이것"과 "저것"으  
로 구분 한다.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라고 하

는데 "이것의 관념"이란 "저것의 관념"이라는 피아상대  
설에 불과 하다. 이것은 상호 존재의 의식과 같이 상호  
배척의 관계도 된다. 이것을 똑 같은 입장에서 보  
면 이것은 저것이요 저것도 이것이니, 이것이 시비될 수  
있는것과 같이, 저것도 시비될 수 있어 결국은 이것도  
시, 저것도 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사고 오류의 원인  
이다. 이말은 모두 존재의 시와 비를 긍정한다는 말도  
된다. 이것은 곧 지성의 한계를 표현한 것이다.

인간은 나오면서 부터 백인백색으로 탄생되고 그래서  
개성도 각색이다. 이 개성이 사회질서를 위해 획일화 무  
개성화 무활성화되어 개인의 감성은 발전못되고 퇴색되  
보된다. 감성이란 창조의 모체다. 감성을 살리기 위해  
각개 개성의 가치와 질을 따지게 해야하며, 따져진 인성  
은 자기 삶에 대해 자기 나름 대로의 "맛"과 "멋"의 감  
성으로 산다는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된 삶인가 했  
다.

그는 문명에 대한 예고도 했다.

"기계가있는 곳에 기사있고

기사있는 곳에 기심있다"

기계는 편리하지만 이에 따라 일이 생기게 되고 일이  
생기면 인간은 무생명인 기계의 노예가 된다. 산업혁명  
이후 문명은 물질을 풍족하게 하였지만 정신부재가 되  
고, 인간은 관리사회에서 살게된다. 그래서 종말에는 관  
리사회의 속박속에서 해방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감성회복을 말하여 이것이 인간소망의 근본이다.

그는 지식무한에 대한 가정도 했다. 인간이 사물에 대  
한 인식은 운동(시간)과 형식(공간)의 두 범주로 대별  
된다고 했다. 그런데 그 운동의 법칙에는 어떤 운동도  
시동이란 인식이 있다. 이 의식은 "시동이 없다"는 부정  
판단으로도 성립된다. 그런데 "시동이 없다"는 판단이  
나면 "시동이 없다는 것도 없다"라는 판단도 된다. 형식  
을 생각하면 어떠한 형식에도 존재 의식이 되는데 존  
재가 없으면 형식성립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존재는  
어느 형식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 개념이다.  
이렇게 전개해가면 이중부정 삼중부정등으로 얼마든지  
부정판단도 성립된다. 이런 무한부정의 연쇄반응의 진리  
로는 진리규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인간들이 "절대"라는 관념으로 의심않는 속  
성이 있는데 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모르고 있다고  
설득했다.

다시 말해 진리(道)란 본래 무한정 하다. 따라서 말의 구분은 일시적인데 불과하다. 이러한 언어를 절대시하는 데서 사물을 차별시키는 관념이 생긴다.

사물을 차별시 하는데서 형식분류가 되고 이 분류가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는 선택과 경쟁을 낳게한다. 이것이 인간사회다.



莊子

분류, 질서, 선택, 경쟁이라는 과정은 인간사고 즉 지식의 소산이다. 이 소산을 인간들은 절대시하는데 지식이란 "말"의 문제일뿐 이것이 진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진정한 진리란 개념 파악도 안된다. 진정한 인식은 말로 표현 안된다. 진정한 사랑은 의식을 갖지 못하는데서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청렴이란 청렴을 한다는 노력으로 청렴이 될수 없고, 진정한 용기는 타인과 싸우지 않는것이 진정한 용기다.

진리를 진리라고 판단 될때 진리가 아니고 오직 "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의식속의 진리나 사랑은 모두가 거짓이다. 즉 "부지의 지"를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를 터득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 일인가.

이 "무지의 지"를 터득함이 오직 진리며 도라 했다.

그러니 이 어려운일에 매달리지 말고 인간이 나면서 구비된 능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산다는 것이 "최상의 진리"요, 길(道)에 가장 가까운 "삶"이라 했다.

이렇게 인생을 일체 부정하면서 긍정하는것이 진리라

는 것이다.

고로 모든 대인간관계는 그일 그자체로 끝내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일에 대해 이유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문제가 되니, 모든 일을 "적절히"라는 말로 행동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고로 살기위해 갖는 직장에서 모범사원이 되어 생명을 바쳐 일한다는 우등사원보다는 회사가 아닌 자기를 위한 자기나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會員이 아니고 斜員이 된다는것은 8~10시간 근무의 회사일과 14-16시간 사는 "자기의 삶"을 조화하여 우등생사원이 아니고 "우등생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안되는 수 많은 일을 인력으로 하려는 愚를 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자기인생 만점"이라는 인생은 없다.

유명한 시인 괴테도 이렇게 인생을 음미 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면  
지구가 참고 돈다는 그 끈기를 생각 하고  
지구는 매일 매일 회전 하며  
매년 매년 큰 일을 한다는데  
나에게 무슨 별일 있는것도 아니니  
나도 지구처럼 본 받아 볼까 하노라"

인생은 살기 위해 일 하는데, 그 일이란 즐거워하며 즐기면서 해야 한다. 생각하면 사랑의 승리도 원한이 될 수 있다. 사회의 지도자나 권력자들은 위선을 버리고 허식을 떨치고 소박 해야 한다.

그리고 "遊" 즉 자유로워 지는것이 인생 제일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인생허무"라는 말은 어느누구도 하는 진부한 말이다.

잘나면 잘난 멋, 못나면 못난 멋, 무능이면 무능의 멋, 불구면 불구의 멋이 있다. 이 모든 이치가 이 천지에 "나" "하나"뿐인 자기가 갖고있는 보배며 이 보배는 그 무엇이든 자기만을 위한 최선으로 모든일 모든길을 긍정하고 즐기면서 자유롭게 "遊"로 그리고 느긋하게 "悠"로 유유히 살아야 한다는것이 진정한 삶이며 진리라 했다.

이야말로 人生入門의 길을 밝힌 書라 이니할수 없다.

莊子 福永先司 遊悠人生入門 竹村慷一老莊思想 安岡正篤 竿 **인생**